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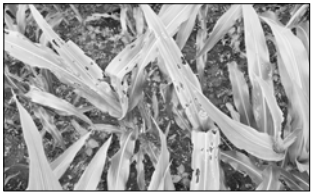
옥수수 값아 먹는 해충 미리 방제해야

농진청, 옥수수에서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해충별 특징·관리 방법 소개

쫄쫄한 찰옥수수부터 달콤한 초당옥수수까지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사랑받는 옥수수. 지금 옥수수 잎과 줄기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갇아 먹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불청객, 나방류 해충들이 날아들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주요 나방류 해충의 특징과 피해 양상을 소개하고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은 봄철 중국 남부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날아온다.

국내에는 4월 중하순부터 발생하는 데, 최근 따뜻한 날씨로 그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는 옥수수 잎, 수꽃, 줄기, 열매까지 가해하며 피해 정도도 크다.



멸강나방 애벌레는 밀린 잎 사이에 숨어 여린 잎을 갇아 먹는다. 두 해충 모두 매년 해외에서 침입해 정확한 발생 시기와 밀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발생 확인 시 농진청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접수 즉시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왕담배나방 애벌레는 수염을 통해 열매로 들어가 옥수수 이삭 끝부분을 갇아 먹는다. 따라서 이삭 수염이 나오는 시기에 등록 약제를 이삭 끝부분

에 충분히 처리해 방제해야 한다. 최근 중북부 지역에서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7월 초중순 공 재배지에서 잎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왕담배나방은 옥수수뿐만 아니라 참깨,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변 작물까지 함께 방제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조명나방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 시기가 5월 초에서 4월 하순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옥수수 줄기나 이삭 안을 파고들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솥 전 제때 방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제 적기는 성 유인 물질 닛(성페로몬 트랩)으로 어른벌레 밀도 변화를 조사했을 때, 최대 발생일을 기준으로 12~19일 후이다. 옥수수 줄기가 급속히 자라기 시

작하는 9~11일 시기로, 6월 초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등록 약제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처리해야 한다. 해충 방제에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Positive List System, H.S)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안전 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등록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 안전 정보시스템(phis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연속 사용하면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달해 약제 효과가 떨어진다. 방제 효과를 높 이려면,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돌려가며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 박항미 과장은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살충제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고 천적이나 꿀벌과 같은 도움 벌레(익충)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제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과 동김제농협이 음천리382와 최근 농협 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농산물 활용 다양한 메뉴 출시

전북농협·동김제농협·음천리382, 농산물 판매촉진 MOU 체결

전북농협과 동김제농협이 음천리382와 최근 농협 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정환 농협 전북본부 본부장, 최진오 동김제농협 조합장, 전재욱 음천리382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김제농협에서 가공한 샐러드의 안정적 납품 체계를 구축하고, 음천리382는 동김제농협 샐러드를 활용한 포케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전북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신 메뉴 개발 등 전북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해 나갈 예정이다. 음천리 382는 전국 2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카페 프랜차이즈로 '도심 속 시골' 콘셉트를 활용해 도농산업을 지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김제농협 샐러드를 활용한 음천리382의 다양한 메뉴를 전국 매장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음천리382와 함께 동김제농협 샐러드 및 전북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해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범죄 기준 조정 환영' 입장문 밝혀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입장문에서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업종별 매출액 상한을 상향 조정할 것을 환영했다. 이번 조정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경제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 원가가 급증하며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고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매출기준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책 대상으로 다시 포함되어 우수 인재 유입, 기술 혁신, 투자 확대 등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견고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로컬브랜드, 문화·경제를 잇는 '동행축제 2025'

크립톤,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원도심서 '2025 대한민국 동행축제 with 전주 글로벌상권' 개최

(주)크립톤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주 원도심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동행축제 with 전주 글로벌상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국제영화제 시즌과 연계하여 전주 글로벌상권 일대(남부시장 전라강변, 웨딩거리, 객사길, 영화의 거리 등)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2일 오후 2시에는 충경로 일대 빈 상가(구 민중서관)에서 공식 오픈인 세션이 열렸고, 전주와 군산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사례 발표와 함께 '로컬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오후 4시부터는 로컬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이 투자자 앞에서 직접 자신들의 비전을 발표하는 '글로벌 데모데이 일취월장'이 이어졌다. 글로벌상권 내 빈 상가를 활용한 '로컬 소상공인 쇼케이스 부스'도 눈에 띄었다. 총 30~40팀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

상공인이 참가해 창의적인 제품을 전시·판매하였으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지역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 가졌다. 3일과 4일에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원도심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글로벌상권 탐방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 네트워킹 라운지 프로그램, 커뮤니티 시네마 상영 등이 연계프로그램까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위키비 하우스와 함께한 커뮤니티 영화 상영회에서는 유진 배우가 호스트로 참여 다양한 지역 이슈를 담은 단편영화도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식품자원개발부장,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 업체 찾아 협력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최명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스마트 팜 전문기업 플랜티팜(주)을 방문 청의 연구 기술로 산업화를 촉진한 현장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랜티팜(주)은 2021년 국립식량과학원으로부터 새싹보리, 새싹귀리, 새싹밀 등 새싹작물에 있는 유용대사체 합량을 높이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 환경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증,

유용대사체 합량이 높은 식량작물 새싹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용대사체는 작물이 가지는 1차 대사물질(일반 영양성분)과 2차 대사물질(폴라보노이드, 사포닌 등)을 말하며 항산화, 면역기능 등 다양한 건강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은 실내에서 여러 층으로 올린 구조물을 이용해 생육환경(광, 온도, 습도 등)을 정밀 제

어, 작물을 생산하는 재배 방식으로 공간 활용성이 높고 날씨와 무관하게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을 활용하면 재배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연중 고품질의 새싹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최명철 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새싹작물 품목 다양화와 고품질 생산기술,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아침밥 먹기 운동'

농협 전주지부, 전주국제영화제 방문객 대상 집중 홍보

농협전주시지부는 전주시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와 쌀 소비촉진을 위해 전주국제영화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집중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대안·독립영화의 국내 최대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 방문객을 직접 찾아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고, 전주 쌀의 우수성과 지역 쌀을 활용한 가공품 나눔으로 쌀 소비촉진 효과를 증대하고자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달 30일 영화제 개막식 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2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영화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물과 전주에서 생산된 우리 쌀, 전주시 답례품으로 선정된 전주농협 현미 누룽지 등을 나눠주며 고향사랑 기부와 아침밥 먹기 운동



의 취지를 알렸다. 하양진 지부장은 "우리 고향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와 아침밥 먹기 운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농협전주시지부와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역, 농촌진흥청, 국토정보공사 등과 지난 달 17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